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2호 【루게 제24840호】 주제104(2015)년 3월 3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흙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찾으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일 오중흙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찾으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었다.

황병서 동지, 오일정 동지, 한광상 동지, 리병철 동지, 손철주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 <만세!>를 부르는 전투비행사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고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뜻깊은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자폭정신이 탄생한 고향부대의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나무를 심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1946년 3월 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 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시고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 산천을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림문제를 놓고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기에 우리 당은 산림복구도 총포성없는 전투로 간주하고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산림 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은 한평생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

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산림 복구전투의 승리는 인민군대의 선봉적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날강도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떨쳐온것처럼 산림 복구전투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인민군 장병들은 어렵고 복잡한 대자연개조사업인 산림복구사업을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로 간주하고 나무를 식수절에

몇그루씩 심거나 다 자란 나무를 떠나 옮겨심는 식으로가 아니라 부대 주변과 주둔지역의 산들이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될 때까지 즐기차게,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군업적이 뜨겁게 어려있으며 당의 전투명령관찰에서 육탄자폭정신이 높이 발휘된 이곳 군부대가 식수사업에서도 천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손수 마련해가지고 오신 구름향나무, 은빛종비나무, 수삼나무, 은행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해주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몸소 삽을 잡으시고 나무를 심으시면서 구멍이파기, 물주기, 흙다짐, 버팀대세우기 등 식수를 과학기술적으로 맞게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함께 나무를 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전투비행사들은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심은 나무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모두가 일들을 간지게 잘했다고, 정성을 바친 나무들이어서 푸르싱싱 자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나무들이 무성해지면 주변환경이 정말 멋있어질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덮어주는 참다운 애국의 정화이라고 하시면서 군부대의 전투비행사들과 군인들이 조국의 재부, 후대들의 행복의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자각을 안고 산림복구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군부대에 건립한 14명 육탄자폭勇士들의 위훈비를 돌아보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찾으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에 참가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친 이곳 부대 14명 전투비행사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는 위훈비를 세울데 대한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월 수 별 빛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아래 14라는 수자를 형성한 위훈비에는 14명 육탄자폭용사들의 위훈을 전하는 비문이 새겨져있으며 그말에는 그들의 당시 소속, 직무와 이름이 부각되어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훈비를 상징적의가 있게 잘 건립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평관철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전으로 나아간 14명 전투비행사들의 육탄자폭정신은 인민군대사상사업의 표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14명 육탄자폭비행사들이 발휘한 조국결사수호정신은 제2, 제3의 길영조정신이라고, 이런 정신은 금은보화를 주고도 절대로 살수도 바꿀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정신적재부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부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물론 전

후에도 미제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였으며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에도 없는 일당백영웅정신, 희생정신, 자폭정신을 탄생시켰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더없는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47군부대의 전투비행사들과 뜻깊은 식수절에 나무도 함께 심고 14명 육탄자폭용사들의 위훈비도 돌아보니 이곳 군

부대가 자신의 마음속에 더 소중히 간직되었다고, 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철주영을 비롯한 14명 육탄자폭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가 앞으로 항공군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은시대 보물산,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애국의 호소따라 온 나라가 산림복구전투에 총력기, 총진입

식수절을 맞으며 전국 각지에서 쫓기모임, 나무심기 진행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대자연개조전투의 장엄한 포성이 울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 주신 뜻깊은 날인 식수절을 맞으며 2일 전국각지에서 일제히 불철나무심기를 시작하였다.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같은 애국의 호소는 천만의 심장을 울렸이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라! 하십시오.》**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가슴 벅차게 사회주의국토건설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수도 평양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식수절을 맞으며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라!>를 높여는 애국의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쫓기모임을 진행하고 나무심기에 파급이 펼쳐나섰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이 국가선물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최봉태 동지, 조연준 동지와 사모진내각부총리, 김영태 조선사학진흥부총리,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전열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35(1946)년 3월 2일 모란봉에 오르시어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 주시고 산 좋고 물 맑은 삼천리수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고결한 총정와 의리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넉넉한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앙양묘장을 찾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성이 어려지는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국토로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나무

의 사업에서 녀맹원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조직들이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면시킴을 위한 전투에 공민적합성을 바침으로써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위한 산을 형성해나가는 데로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심어가되는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이 조국의 재부가 되고 행복의 밑천으로 된다는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일군들과 녀맹원들은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주변에 갖나무를 비롯한 5 000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수도건설위원회, 철도성, 문화성, 유원지총국의 일군들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에서

평안남도, 평안북도근로자들의 쫓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의 호소를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천만민족은 산림복구전투에 적극 떨쳐나서 새로운 주

제100년대에 황금산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어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불려오시여주시고 강조하였다.

모든 단위들에서 불철나무심기열풍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의 수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강도에서는 올해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고 적극 애용관리하여 산불발지대책, 병해충피해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군적운동으로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에서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근로자들의 쫓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열렬한 조국애가 있어 우리 조국애가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인민의 낙원이 일떠서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산림복구전투에 한걸음이라도 앞장서서 나무심기, 갖나무를 비롯한 빨리 자라고 경제적용치가 크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강원도안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국토환경, 도시경영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양묘장들을 더 잘 꾸리고 나무모양산향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스트로브스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창성이깔나무 등 여러가지 꽃관목을 심으며 갖가지 꽃관목을 아름답게 꾸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목재림, 경제림, 맹나무림, 혼성림 등도 조성하며 나무심기에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사물들을 90%이상 보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함해북도안의 벌기벗은 산들에 나무를 심으며 림복합 홍남과 단천지구들 비롯한



식수절을 맞으며 전국 각지에서 쫓기모임, 나무심기 진행

- 모란봉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까라르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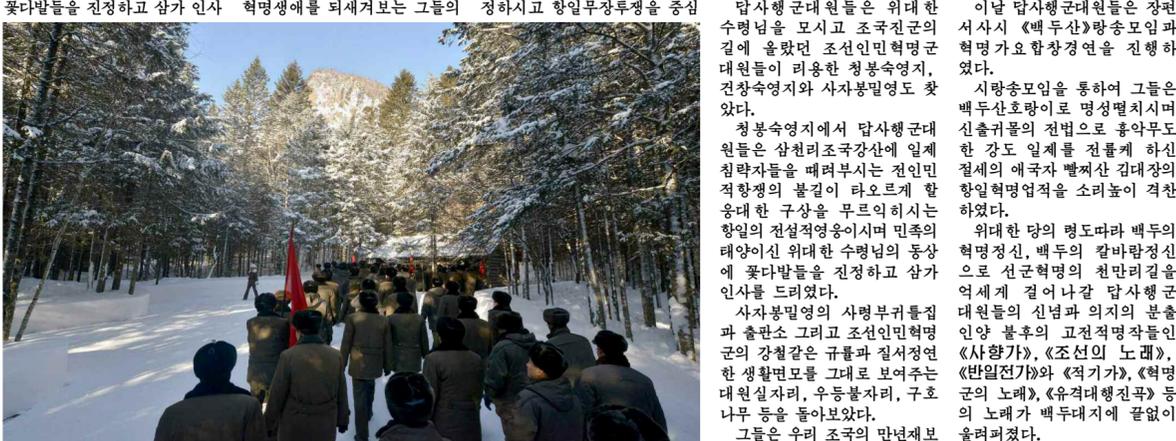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까라르 마라세무역 및 운송회사 총사장과 우들랜드주제무역회사 총사장이 각각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들을 총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일 16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데웨-로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러과학자거리전성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권위원회 인터네트홈페이지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전국 행정 책임 일군들 백두산 밀영고향집방문, 청봉, 건창숙영지, 사자봉 밀영 답사

【삼자영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하고있는 전국 행정책임일군들이 2일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준 혁명의 고향집,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백두산밀영을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강명성이 솟아오른 고향집을 웅위하여 거연히 찾아오는 정일봉을 우리러드며 승연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영사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페플리카각하 나는 생일을 맞는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올림을 축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록음이 우거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전변시키자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나무심기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식수철을 맞으며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나무심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릴 열의 밑에 모란봉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많은 나무를 심었다.

금속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나무심기에 열처나섰다.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어 모란봉을 더욱 아름답게 꾸릴 열의 밑에 모란봉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많은 나무를 심었다.

에로 심장을 꿰뚫어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온갖 정성을 다 하였다. 그들은 구멍이파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한데 이어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깔고 물을 주면서 나무를 심어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였다.

가지고 성실한 땅을 바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자기들이 설자리는 전투현장이라고 하면서 식수철의 하루를 보람찬 로동으로 보냈다.

더우기 부식토를 잘 준비하여 이번 나무심기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뜨거운 애국의 열정안고

뜻깊은 3월과 더불어 그윽한 정취를 한껏 풍기는 인민의 명산 모란봉이 나무심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백두산 3대장군의 거룩한 발자취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모란봉을 명승지로 더욱 훌륭히 꾸릴 뜨거운 애국의 열정안고 펼쳐나선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면서 많은 나무를 심었다.

석탄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의 열의로 가슴을 꿰뚫어 나무심기에서 기세를 올렸다.

성책업일군들이 오늘의 나무심기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신심드높이 분발해나선 정무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어 모란봉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꾸릴 열의 밑에 모란봉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많은 나무를 심었다.

그들은 나무를 심은 다음 물을 충분히 주고 밭아준데 이어 버티대를 세워 사물들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진력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안고 모란봉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성책업일군들이 모란봉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우거지게 하자》를 받아안자 이번 식수철에 애국의 마음을 더 많이 심기 위한 열의로 가슴을 꿰뚫었다.

특히 철도성, 화학공업성, 경공업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나무를 많이 심음에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깊이 받아안고 좋은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어 평양시를 더욱 풍치수려하게 꾸리기 위해 한사람같이 열처나섰다.

그들은 《자연과의 전쟁,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열처나선 전!》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무 한그루한그루마다 애국의 땅을 아낌없이 물었다.

철도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록음이 우거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려갈 불타는 열의안고 펼쳐나선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었다.

림업성의 책임일군들은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품을 들여 키운 아까운 나무모를 죽어버리게 되며 그렇게

질적으로

되던 산림을 빨리 복구할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무심기에 앞서 모든 정무원들에게 집어할 나무의 생물학적특성을 비롯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구체적

으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기들부터 실천적 모범으로 나무모운반과 구멍이파기, 물주기를 비롯하여 나무심기에서 나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자기들이 심는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이 조국의 재부가 되고 행복의 밑천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한 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나무심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특히 그들은 나무의 생물학적특성을 맞게 심은 후 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잘 밭아 주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 창 길

본사기자 윤 용 호



이와 함께 심은 나무들에 버티대를 세워주어 사물들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게 하였다. 산림복구전투의 첫해인 올해의 식수철을 맞으며 진행된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나무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르짖는 전투적구호에 어떻게 화답해나서야 하는가를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밖에도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한사람같이 열처나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였다.

- 모란봉에서 -

본사기자 전진남, 김진명 찍음

본사기자 주창일



- 만수대혁명사적지에서 -

- 국가선물관앞에서 -

- 양각도에서 -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아세안위원회에서 연회 마련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일 주조 아세안위원회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성주동지와 박근광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주조 아세안위원회 의장인 음 씨와다 캄보디아왕국 특명전권대사와 기약때까지 개오반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팜 비엣 흥 캄보디아왕국 특명전권대사, 일합 투아 빈 일라스 말레이시아 림시대리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음 씨와다 캄보

그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아세안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 조선반도주변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아세안선원국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우리 나라와 아세안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다음으로 강성주동지가 연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피괴파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남조선전역에서 진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과 미국, 일본, 일본 등 해외기자들이 전개된 수많은 미군과 남조선피괴파군력, 조선반도주변의 해지형에 맞게 건조된 미군연안전투함 《포트워스》호를 비롯한 방대한 전쟁수단들이 동원된다고 한다.

미국이 남조선피괴파들과 함께 또다시 강행하고있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먼저 배우고 신축성있는 사회주의제도도 《붕괴》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대조선전력에 따르는

용납 못할 침략행위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으며 《년례적》, 《방어적》훈련이라는 타명을 늘어놓아 우리들의 전쟁연습을 습관시키고 만성화시켜 헤이되게 만든 다음 동력충자는 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이 주변의 한결같은 항의 규탄을 무릅쓰고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여놓고있는 것은 또한 아시아태평양중지 전략에 따르는 음흉한 술책이다.

미국은 부단한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자들의 사관인 남조선 피괴파를 더욱 박박 끌어들이 북남관계전도 차관하고 주변나라들을 포위억제하는데 피괴파

을 대포함으로 써먹으려고 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계속 긴장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무력을 증강할수 있는 구실을 부지해보려 하고있다.

적들이 벌리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어느때보다도 도발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세계에 들어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변하고 신축성있는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림시 중지하는 경우 미국이 우려하는 행시합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에 대하여

밝히고 미국과 언제든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림장도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세해씩부터 대동령이 직접 나서서 대조선 《추가제제》를 선포하고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킬것이라고 공언한데 이어 남조선 피괴파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하는것으로써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과 노력들에 전면도성 해나섰다.

이로써 긴장격화의 장본인, 평화과피의 주범으로서 미국의 정세와 위선적인 대화타령의 기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국과 남조선피괴파들의 도발적인 반공화국대결광풍이 불려온 협박한 정세와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우방적인 불꽃이 필수 있는 위험도는 특별히 높다. 미국의 대조선전대정책이 분별을 잃고 구도로 포악무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성의있는 대응은 더욱더 강도 높게 벌어질것이다.

이미 천명헌바와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있으며 적들의 사소한 도발행동에도 정의의 조국통일대진으로 대담할 필적의 의지에 넘쳐있다.

조선반도에서 끝끝내 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과 남조선피괴파들은 그 후파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체104(2015)년 3월 2일 평양

독자의 권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도 만날 때마다 돋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갈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나이가 락 우인 아버지갈기도 해서 따르고싶은 사람, 그는 강동군인민보안서 아예단위 인민보안원 주원필동지입니다.

그와 그의 가정이 강동군 문화리에 사는 3명의 전쟁로병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온지도 이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들중 한명인 정병준전쟁로병의 딸입니다.

60나이를 가까이하지만 자주 전쟁로병들의 집을 찾아가 날로

보석같은 마음

변천하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고 때로 갖가지 영양식품과 특색있는 기념품들도 그들에 게 안겨주며 진정을 다하는 주원필동지입니다.

전쟁로병들의 건강을 념려하여 늘 마음쓰며 생활에서 자기마한 애로가 있을세라 친자식처럼 돌봐주는 그를 두고 마음사람들이 험치 않은 사람이라고 칭찬할때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우는것은 응당할 본분이라고.

그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관산군 관산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조급신원일군들이 당보에 실리는 노래들을 먼저 배우고 거기에 단정된 심오한 사상주제내용들을 환히 깨들도록 한 다음 노래모듬과 해설을 동시에 진행해나 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조직에서는 포진방송기제를 리용하기도 하고 리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통하여서도 노래모듬과 해설을 실속있게 진행해나 가고있다.

얼마전 거름생산전투장의 열

참에 제 2작업반 선동원 김금숙동무는 노래 《인민의 환희》에 대한 해설과 보급을 잘하여 농장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노래모듬과 해설을 통하여 농장원들은 천하제일일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부듯이 간직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애국충정의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거름생산실적을 부쩍올리게 되었다.

리당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신념의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황금벌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열처나서고있다.

리당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신념의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황금벌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열처나서고있다.

리당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신념의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황금벌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열처나서고있다.

리당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신념의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황금벌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열처나서고있다.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부르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평양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